

人 間 의 길

<時論>

社團法人 韓國타이어工業協會

安 文 圭

끝없이 흘러가는 歲月속에 今年은 어느 해 보다도 多變의 해인가 보다.

여름이면 바캉스를 즐기는 避暑客들이 萬物を 태울듯이 내려쬐이는 뜨거운 햇볕 아래서 조약돌이 깔려있는 海邊가로 밀려오는 波濤와 함께 저 멀리 불어오는 바람에 불타는 마음을 적시기 爲하여 바다로 江으로 찾아가는「바캉스時節」이 今年에는 방에서 부채질로 마음을 달래는「여름」으로 끝나는가 보다. 7月 初旬부터 오는 비는 繼續지금도 창밖에는 비가 내리며, 그 소리는 感傷의 인 소리 보다는 마치 恐怖의 소굴로 몰아넣는 惡의 소리로 들린다. 벌써 水害로서 人命의 被害는 140名이 넘게 犧牲되었으며 財産의 損失만도 數十億에 達했으니 그 사람들은 비를 怨望하며 悲慘한 生活을 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구나! 또 여름 바캉스에 한몫을 대단히 노렸던 여러 避暑地의 觀光業所는 例年에 없던 곱배기 장마 때문에 장사를 망쳤는데 10年來의 不景氣였다 고 울상을 짓고 있으며, 全國에서 1천만을 헤아리는 해수욕 人口가 올해는 그 3분의 1도 바다속에 뛰어들어 보지도 못했다고 푸념이 大端하다. 또한 장마의 季節에 美國의 닐·암스트롱은「아폴로 11호」宇宙船을 타고 저멀리 있는 달에 첫발을 디딤으로서 人間의 힘이 얼마나 偉大한가를 보여 주었으며 이것을 契機로 우리 地球에서는 産業의 大變化가 일어 날 것으로 豫想이 된다. 이제 人間은 이 地球의 萬物의 靈長이 아니라 宇宙人으로서 모든 天體宇宙를 支配할 수 있는 超人間으로서 飛躍하기 때문이다. 지금 이 宇宙時代가 되는 時點에서 先進國에서는 人間의 慾望을 끝없이 追求하는데 우리들의 社會는 아직도 삶에 허덕이는 바쁜 生活에 쫓기는 것을 볼때 흔히 사람들은「사람이 살기 爲해서 먹느냐, 먹기 爲해서 사느냐?」하고 물어보지만 이말은 사람에 따

라 각각 틀린 것이다. 生活能力이 高度로 發達되어 있는 先進國에서는 이말은 興味の 對象이 되지 못하지만 普通사람들 한테, 즉 하루 하루 食生活에 甚刻한 사람들 한테는 于先 먹는다는 것이 살아야 하겠다는 目的 意識일 것이고 좀더 餘裕가 있는 사람은 산다는 것은 잘 먹으며 좀더 自己滿足을 取하기 爲한 것으로 산다는 것은 먹기 爲한 것이고 먹는다는 것은 살기 爲한 合理的인 方法이 되는 것이다.

사람은 動物과 달라 생각할 수 있는 思考力을 가진 것이 그 特徵이라 한다. 생각할 수 있는 人間이기 때문에 人間은 누구나 다같이 幸福을 追求하는 것이다. 幸福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돈에서 오는 幸福, 地位나 名譽에서 오는 幸福, 事業에서 오는 幸福——그러나 그것은 순전히 그것 만으로서 幸福은 오래가지 못하며, 理性의 빛으로 造化된 것이어야 한다. 순전히 理性의 빛으로 얻은 幸福은 무엇보다도 貴重하다. 그러한 幸福은 다이아몬드와 같이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인 것도 事實이다. 또한편 貴한 것은 그만큼 얻기 어려운 것이 世上의 理置다. 사람에겐 貧富의 差異가 있고 재주와 能力의 差는 있지만 理性의 힘만은 똑같이 負與되어 있다. 돈 많은 사람이 더 理性이 밝고 돈 없는 사람이 理性이 무딘 것도 아니다. 누구나 基本的인 理性의 힘은 共通으로 갖추고 있는 것이다. 眞情 幸福에 이르는 길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거라고 볼 수 있다. 이 주어진 幸福을 찾기 爲해서 人間은 努力하는 것이다.

「求하라 그러던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求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이가 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惡한 者라도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求하는 者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律法이요 先知者니라.」라는 聖書의 말같이 人間은 行하여야 하는 것이다.

「사람은 흠에서 나서 흠으로 돌아간다」는 말같이 언제나 우리 人間의 뒤에는 “죽엄”이란 것이 뒤따르고 있다.

죽엄이란 것을 생각할 때 人間은 虛無한 것이다. 옛날의 秦始皇帝는 죽지 않으려고 不老草를 求했다고 하며 징기스칸이나 나폴레옹 같이 天下를 支配하던 者도 모두 죽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드시 비록 肉體는 흠으로 갔어도 그의 業績의 形態는 歷史의 한 Page를 裝飾하며 人類後輩한테 하나의 敎訓을 주는 것이다. 「人生은 짧고 藝術은 길다」란 말이 여기서부터 나온 것이리라!

사람은 생각할 수 있는 萬物의 靈長이기 때문에 思老力은 끝없이 發達하여 옛날의 사람들은 하나의 꿈으로만 想像하던 것이 至今은 神이 無

色할 程度로 人間의 智慧는 高度로 發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 時代에서 나는 살면서 보고 또 불려고 한다. 果然 우리 世代에 人間은 얼마나 偉大한가를……

이 時代에 있어서 살아 있다는 것이 얼마나 幸福한 것인가? 이러한 좋은 것을 보고 느낄 수가 있으니 말이다. 또한 마치 죽지 않고 끝없이 살 드시 에고이스트의이며 마음에 없는 行動을 하면서 自己自信은 把握못하며 人間의 價値를 絕對的 價値로 判斷하는 것을 볼때 「너 自信을 알라」는 소크라테스(BC 470~399) 말을 들려주고 싶어진다. 그러한 人間은 남은 알면서도 自信을 모르는 人間이기 때문이다. 人間은 똑같은 理性을 가졌으면서도 그 주어진 環境과 條件 때문에 貧富의 차이를 두고 自己의 幸福을 追求하지만 모든 人間은 흠에서 태어나 現實에 속으면서 苦生을 하고 또 苦生을 하다가 흠으로 돌아가는 것이 「人間의 길」이라고 나는 다시 한번 말하고 싶어지며, 이 人間의 길을 다같이 善을 지키고 惡을 排除하면서 얼마나 속으며, 얼마나 苦生을 하는가를 끝까지 견디며, 다같이 힘차게 또 굳세게 살아봅시다.

朴正熙 大統令 演說文 拔萃

歷史는 한 時代에 妥當하고 健全했던 思潮나 使命이라해서 다른 時代에도 그대로 適用되거나 머물러 있어야만 된다는 것은 아니고 前進된 또다른 時代에 들어서서는 그 妥當性和 健全성이 새로이 檢討되고 評價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存在가 思惟를 拘束한다는 眞理가 있거니와 새로운 價値를 創造하기 爲해서는 오늘의 存在에 바탕을 둔 새로운 思惟와 使命이 切實히 要請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